R-1. SPT중인 Drug-Influenced Gingival Enlargement 환자에서의 협측 치은두께에 관한 연구

여영산*, 조현규, 정현희, 이영규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서울중앙병원 치과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치주치료후 정기적인 SPT를 받고 있는 약물에 의한 치은비대환자와 치주염환자 사이의 협측치은두께의 차이를 비교하여, 약물에 의한 치은비대가 치은두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는 데 있다.

연구방법

본 연구는 서울중앙병원 치과에서 치주치료를 받고 정기적으로 SPT를 받고 있는 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치은비대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면역억제제인 cyclosporin이나 Ca-channel blocker를 복용하고 있는 28세에서 65세(평균연령 43세)사이의 환자 17명(남성 11명, 여성 7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들 중 4명의 환자는 cyclosporin만을, 2명은 Ca-channel blocker만을, 그리고 나머지 12명은 cyclosporin과 Ca-channel blocker를 동시에 복용하고 있다. 이들 중 13명은 azithromycin 복용과 함께 외과적 치주치료를 받았고, 나머지 5명은 azithromycin 복용과 함께 비외과적 치주치료만을 받았다. 이후 모든 환자는 정기적인 SPT를 받고 있으며, 치태조절이 잘 되고 있다. 치료기간은 평균 32개월이며, SPT 횟수는 평균 8회였다.

대조군은 치은비대를 야기하는 약물을 복용하고 있지 않은 환자 중, 치주염치료후 SPT 중인 일반적인 치주환자 9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 3 대구치는 측정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제3대구치를 제외한 전체치아개수가 24개 이하인 환자는 제외되었다. 실험군의 전체치아의 개수는 493개이며, 대조군 전체치아의 개수는 250개이다. 치은두께를 측정하는 방법은 초음파 기기(SDM)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개개 치아의 협측 치은의 두께를 probing depth 직하부에서 측정하였다.

협측 치은 두께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했으며, 두 군간의 차이를 알기 위해 Student t-test를 시행하였다.

결과

실험군은, 상악과 하악 모두에서 제2 대구치에서 가장 두꺼웠고(1.36mm와 1.79mm) 견치에서 가장 얇았다(0.93mm와 0.94mm), 대조군에서는, 상악의 경우 중절치가 가장 두꺼웠고(1.32mm) 견치가 가장 얇았으며(0.92mm), 하악에서는 제2대구치가 가장 두꺼웠고(1.38mm) 제1소구치가 가장 얇았다(0.83mm).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은 각각, 1.21±0.51mm과 1.03±0.36mm이였으며, 두 측정치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1$).

그러나 실험군과 대조군의 차이는 상악 제2 대구치, 제 1 대구치, 제 2 소구치에서, 그리고 하악 제 2 대구치, 제 1 대구치, 제 2 소구치에서만 볼 수 있었으며. 상하악 제 1 소구치에서 중절치까지는 두께의 차이를 볼 수 없었다.

결론

본 실험의 한계성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1) 실험군과 대조군의 평균 협측 치은 두께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볼 수 있었다.
2) 실험군과 대조군의 각 치아의 치은 두께는 상하악 모두에서 제 2 대구치, 제 1 대구치, 제 2 소구치에서만 통계학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를 보였다.
3) 실험군의 경우 제 2 대구치의 치은 두께가 가장 두꺼웠고, 견치의 경우가 가장 얇았다. 대조군에서는 상악의 경우 중절치가 가장 두꺼웠으며, 하악의 경우에는 제 2 대구치가 가장 두꺼웠 다. 대조군에서 가장 얇은 치은은 상악에서는 견치, 하악에서는 제 1 소구치였다.

결론적으로 치주치료와 지속적인 SPT로 치은연상부와 치은연하부의 치태조절이 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면역억제제나 Ca-channel blocker의 투여는 이들 약물에 의한 치은비대로 인해 협측 치은의 두께를 증가하게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